

봉원사의 전통이 된 '삼동산림'

- 일반적 안거(安居)와는 형식적으로 차이가 있어 -



북쪽 산허리에서 매서운 바람이 소리 없이 옷깃을 파고드는 새벽 4시. 하늘의 정기가 사찰의 처연한 지붕을 스치며 새벽 목탁 소리를 듣고 산 아래 중생의 하루를 깨운다.

'도량석(道場釋)', 산사의 새벽을 열고 중생의 눈감음을 일깨워 지혜와 법을 전하는 의식의 첫걸음이다. 깨달음의 도량을 열어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열반의 세계로 가기를 서원하는 성스런 수행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세속의 욕심은 끝없이 솟아나고, 그 욕심은 자신도 모르게 온몸을 움아맨다. 그럴수록 삶은 힘들어지고 탐진치(貪瞋癡)가 끊임없이 커지는 오염된 세속에 살게 될 것이다. 그 오염된 세계는 사물(종송, 대중, 흥고, 운판)소리의 낮고 깊은 소리와 함께 사라질 것이다.

온 사찰에 울려 퍼지는 목탁 소리와 사물 소리는 태고의 천지가 개벽하듯 고요를 뚫고 자연 만물의 조화로운 기운들을 모으듯 깨달음의 소리로 다가온다. 경내 법당 주위를 수차례 돌며 새벽의 기운을 흠뻑 담은 깨달음의 사자후가 산자락을 내려가 속세에 닿을 즈음 먼동이 튼다. 날이 막 새기 시작하는 이른 새벽, 어둑어둑한 적막 사이로 스님들의 발자국 소리가 가을 낙엽 떨어지듯 조심스런 소리로 법당을 향한다. 타종과 흥고는 마치 천지만물이 깨어나 겨울의 적막함, 혹은 번뇌와 망상의 속세로부터 깨달음을 경지로 한달음에 고쳐 오르게 할 듯하다. 이윽고 진행되는 화엄법회(華嚴法會), 새벽잠을 도닥이며 법당을 찾아온 신도들과 봉원사 모든 스님들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으로 숙연해지고 아직도 사바세계를 헤매는 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치기 위해 명상처럼 마음을 내려놓는다. 이제 좁고 기나긴 산사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삼동산림 낭랑한 독경과 목탁 소리에 깊은 번뇌가 사라지고 있었다.

오는 11월 24일(음력 10월 10일) 화요일은 봉원사의 삼동산림 입재일이다.

삼동산림이란 삼동(三冬)의 추운 겨울 절의 문밖을 나서지 않고 대중 스님들이 도업(道業)을 수행하는 것을 일컫는다. 보통 다른 절에서는 '동안거'라 지칭하나 봉원사, 백련사, 안정사 등 태고종 일부 사찰에서 전통적으로 스님들과 신도들이 새벽 법회를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데서 다른 절의 의식과 차이를 보인다.

원래 '안거'란 불교도가 외출할 때 자신도 모르게 초목이나 작은 벌레를 밟아 죽여 금지된 살생을 범하게 되고 또한 행걸(行乞)에도 적합치가 않아, 동굴이나 사원에 들어앉아 좌선수학에 전념했던 것이다. '동안거'는 겨울에 스님들의 외출을 금하고 좌선과 수행을 하며 주의 깊게 주변을 관찰하여 생명의 고귀함과 인연에 대해 생각하는 기간이다. 그러나 도심 사찰에 주석하고 계시는 스님들의 경우 수개월 동안 산문 출입을 하지 않고 수행에만 정진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기에 새벽만이라도 모든 대중과 함께 모여 몸과 마음을 닦는 수행을 하자는 차원에서 시작되었다고 전해진다.

봉원사에서는 삼동산림 기간 동안에는 많은 사부대중과 신도들이 참여해 한마음 한뜻으로 부처님 전에 신심을 다해 기도를 올려 선근인연을 맺고 소원성취를 위해 정성을 들인다. 두 달여 동안 매일 새벽 4시 도량석을 시작으로 쇠송, 타종(33번) 그리고 모든 대중들이 참여한 가운데 설법전에서 아침 예불과 기도, 공양이 두 시간 가까이 가까운 시간 동안 이어진다. 산사 새벽 법회는 6시부터 봉원사의 모든 스님들이 설법전에 모여 법회를 열고 기도를 하며 활기찬 아침을 시작하게 된다.

경자년 삼동산림(동안거) 기도 동참 안내문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예년과 같이 사부대중이 모두 모여 용맹정진에 들어가는 동안거 입재 기도법회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오니, 많은 불자들에게서는 모두 동참하시어 부처님과 선근인연을 맺고 소원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아 래

- 동안거 입재일 : 2020년 11월 24일(음력 10월 10일) 화요일 오전 10:00시
- 동안거 회향일 : 2021년 1월 20일(음력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00시
- 기도장소 : 설법전
- 기도시간 : 매일 오전 06:00시
- 동 참 금 : 기도 불공비 공양미 1가구 한 가마, 반 가마
- 영가1위 : 30,000원
- 접 수 처 : 각 화주 스님 및 종무소(02-392-3007~8)

차량운행 시간표

시간	버스정류장
05:25	봉원사 출발
05:30	구 미라보호텔
05:33	신촌 전철역(2호선) 3, 4번 출구 사이
05:40	세브란스병원 정문 맞은편 정류장
05:45	독립문앞 정류장(고가길)
05:50	봉원사 도착

※ 노선 추가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종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름달처럼 풍성한 추석 한가위 합동다례 봉행



지난 10월 1일(음력 8월 15일) 목요일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하여 봉원사 각 법당에서는 아침 7시부터 매시간 화주 스님 별로 한가위 차례(茶禮 : 다례법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오후 두 시에는 설법전에서 합동다례가 열려 신도들이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경건한 시간을 가졌다. 모든 의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체온측정과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을 한 후에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며 치러졌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도 부르는데 ‘한’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이고 ‘가위’라는 말은 ‘가운데’라는 뜻을 가진 옛말로 즉 8월 15일인 한가위는 8월의 한 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뜻이다. ‘가위’라는 말은 신라 때 길쌈놀이인 ‘가배’에서 유래한 것으로 ‘길쌈’이란 실을 짜는 일을 말한다. 신라 유리왕 때 한가위 한 달 전에 베 짜는 여자들이 궁궐에 모여 두 편으로 나누어 한 달 동안 베를 짜서 한 달 뒤인 한가위날 그동안 베를 짠 양을 가지고 진 편이 이긴 편에게 잔치와 춤으로 갚은 것으로부터 ‘가배’라는 말이 나왔는데 후에 ‘가위’라는 말로 변했다고 한다. 추석이 되면 더위도 물러가고 서늘한 가을철로 접어드는 때이다. 추석 무렵에는 넓은 들판에 오곡이 무르익어 황금빛으로 물들며 온갖 과일이 풍성하기 때문에 조상을 기리며 음식을 올리기에 적당한 때가 된다.

추석날 지내는 차례(茶禮)는 불교 의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차례는 원래 ‘부처님께 차 공양을 올린다.’는 ‘다례(茶禮)’에서 유래 되었다. <삼국유사>에도 신라 경덕왕 때 충담 스님이 매년 설과 추석이면 경주 남산 삼화령 미륵세존에게 차를 끊어 올렸다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차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불교는 조상의 극락왕생(極樂往生)을 비는 자리에는 항상 차를 준비하였다. 차례는 우리 민족의 조상을 향한 미풍양속과 불교의 다례(茶禮)가 결합된 최대 명절 행사이다.

은 국민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이때, 차례와 불교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신도들은 법당을 찾아 부처님께 공양물을 올리고 위패를 놓고 조상의 극락왕생과 가족의 건강을 빌었다. 또한 늦게 도착한 신도들을 위해 스님들은 오랫동안 법당에서 축원기도를 올렸다.

시주접수처 안내



봉원사 도량 내에 새로운 기와불사 및 시주접수처가 마련되었습니다.

시주(施主)란 글자 그대로 ‘보시하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신도님들은 새로운 시주접수처에서 시주공덕을 쌓으시어 시련이 사라지고 더 많은 이익과 결실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 운영시간 : 오전 10시-12시, 오후 1시-3시
- 문 의 : 종무소(02-392-3007~8)
- ※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접수처 시간을 위와 같이 조정, 운영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제32회 영산재 시연

귀의 삼보하옵고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잠정 연기되었던 영산재 시연을 아래와 같이 다시 준비하였습니다.

불교공연문화의 정수인 영산재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의 쾌거를 이루며 명실공히 전 세계인의 소중한 자산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영산재의 보존과 정기공연을 통해 영산재의 대중화와 예술적 성과를 올리며 발전을 주도해 온 영산재보존회(어장 구해 스님, 회장 운봉 스님)는 올해 여느 때보다도 특별한 영산재 시연회를 기획하였습니다.

모쪼록 불교의식의 정수인 영산대제 시연회에 여러분의 큰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아 래

- 일 시 : 2020년 11월 26일(음력 10월 12일) 목요일 오전 10시
- 장 소 : 봉원사 영산재 보존 도량
- 문 의 : 종무소(02-392-3007~8)

(사)국가무형문화재 영산재보존회

봉원사 경내에서는 항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원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奉元寺 木造地藏菩薩三尊像 十王像 一括)

-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471호 지정 -



지장보살상(중앙)과 도명존자(좌) 무독귀왕(우)

알려져 있다. 그가 만든 봉원사 명부전의 존상들은 신체, 옷 등 전체적인 구성은 물론, 얼굴, 코, 귀 등 세부에 이르기까지 색난 작품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얼굴은 정사각형에 가깝게 폭이 넓으며, 코는 이마에서부터 급격히 솟았다가 코끝에 이르며 완만해 진 모습이다. 얼굴 중앙에 자리한 우뚝한 코는 매우 강렬한 인상을 주며, 긴장한 상·하반신과 잘 어울려, 전체적으로 건장하고 당당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귀는 비교적 폭이 좁고 길이가 긴 형태로, 귀의 테두리와 귓속까지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귓구멍, 귓바퀴 등 굴곡진 부분에는 선각을 곁들여 사실성과 입체성을 잘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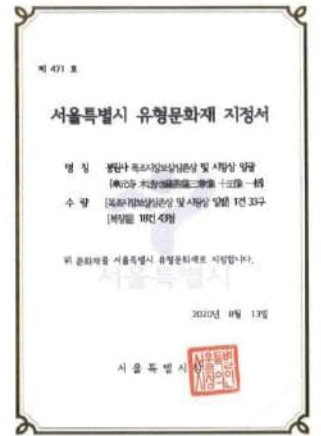
이처럼 봉원사 명부전의 지장보살상은 전체의 체형, 얼굴 형태, 코와 귀의 표현, 그리고 착의법과 옷주름 표현에 있어서 여타의 색난 작품들과 동일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지장보살을 제외한 도명존자, 무독귀왕, 시왕, 귀왕·판관·사자, 동자 등 상에서도 지장보살상과 같은 얼굴의 세부 특징이 나타나 있어, 이들 존상들도 모두 색난을 비롯한 색난과 조각승들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12구의 동자상 중에서 목조상 1구와 석조상 2구는 크기도 작고 양식도 달라서 후대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지정된 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33구 외에 다수의 복장물(18건 43점)도 문화재로 지정 되었다. 지장보살좌상에서는 조성발원문(2점), 후령통(2점), 묘법연화경(일부), 도명존자상에서는 명주저고리, 명주천, 무독귀왕상에서는 조성발원문, 후령통, 다라니, 좌측판관상에서는 후령통(3점), 불설부모은중경, 수륙무차평등재의활요, 묘법법화경(일부) 등이 발견되었다

봉원사의 지장삼존상 및 시왕상은 문자 기록을 잘 갖추고 있고, 작품의 완성도가 뛰어나며, 조각승 유파와 작품 양식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학술 자료이다. 따라서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보호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편집자 주) 지면관계상 문화재로 지정된 시왕상과 동자상, 복장품들을 모두 실지 못했습니다.

봉원사 홈페이지(bongwonsa.or.kr)를 방문하시면 누락된 문화재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제471호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봉원사에서 문화재 지정 신청한 문화재가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 서울시 유형문화재 6점과 문화재자료 2점이 지정되었다. 현재는 봉원사의 문화재 2점과 문화재자료 3점이 추가로 지정 고시된 상태이다. 이번 호에는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71호로 지정된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등에 대해 소개한다.

현재 봉원사의 명부전에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의 도명존자, 무독귀왕이 삼존을 이루고, 좌우로 시왕, 귀왕, 판관, 사자, 장군(인왕)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으며, 12위의 동자를 더해 모두 33체의 존상이 봉안되어 있다.

주존인 지장보살상은 나무로 조성되어 도금된 상태이며, 별도로 제작되어 몸체에 삽입된 두 팔을 포함하여 전체가 완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조성 당시의 발원문이 지장보살상(2건)과 무독귀왕상(1건)에서 발견되었는데, 제작시기, 조각가, 시주자 등 불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으나, 원래 봉안되었던 사찰과 전각의 이름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좌 상면의 조성기를 통해 수조각승 색난(色難)을 비롯하여 행탄(幸坦), 모현(暮玄), 웅원(雄遠), 혼평(混平) 등 18인에 의해 1704년 6월 30일에 완성되었다고 한다. 다만 1704년의 조성발원문에는 존상이 봉안되었던 사찰과 전각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무독귀왕이 들고 있는 방형의 지물 밑면의 묵서명에 의하여 1858년에 당시에는 봉원사에 봉안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수조각승인 색난은 안정된 비례를 갖춘 건장한 몸체와 정제된 옷주름 처리, 예배자를 압도하는 원초적 당당함을 잘 표현한 작품들을 다수 남긴 명장(名匠)으로

시왕상 21위



동자상 12위



복장물 18건 43점



영산재(靈山齋)의 법기와 진언다라니

- 제14회 봉원사 영산재 학술 세미나 원만 회향 -



(사)국가무형문화재영산재보존회와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육천범음대학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가 지난 10월 8일 오후 1시 봉원사 설법전에서 열렸다.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등의 후원으로 열린 이번 학술 세미나는 '영산재(靈山齋)의 법기와 진언다라니'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이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는 중진학자들과 신진연구자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문을 발표하고 열린 논평과 토론을 벌였다.

올해로 14회를 맞이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유자인 구해 스님,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권기현회장, 전수교육 조교 일운 스님, 교수 만춘 스님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영산재보존회 회장 윤봉 스님을 대신하여 봉원사 총무 연허 스님의 개회사에 이어 권기현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장의 인사말과 영산재 보유자 구해 스님의 치사로 시작되었다.

총무 스님이 대독한 개회사에서 윤봉 스님은 "오늘 학술세미나가 '우리들만의 행사'가 아닌 세계 모든 문화인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한국문화(K-Culture)의 첨병이 되어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며 "아프고 외로운 모든 소외된 사람들이 편안히 귀의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더 넓고 더 깊은 경지의 문화예술로 승화될 수 있도록 회원들 모두가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권기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불교의례와 불교문화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성과를 가진 발표자들이 '영산작법'과 그에 수반되는 '악기', '진언다라니' 등에 관한 새로운 내용을 밝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또 하나의 학술적 경계선을 넘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유자인 구해 스님은 "거듭되는 세미나를 통해 영산재가 세계적으로 발돋움하길 기원하며, 전통 의식은 지키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영산재보존회는 젊어져야 합니다."라고 치사했다.

교무 범수 스님의 사회로 식전행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부산대 서정매 교수의 사회로 1부 주제발표가 시작되었다. 첫 발표는 '구병시식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정명 스님(동방대학원대), 이에 대한 논평은 흥태한(전북대 연구위원), '영산재 취타주 법기의 문화 정체성에 대한 고찰'을 윤소희(위덕대 교수), 논평은 홍주희(제주대 교수)가 하였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황순일(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2부 주제 발표가 시작되었다. 세 번째 발표는 '영산재의 작법별 진언다라니 연구'를 주제로 보현 스님(원광대)이, 논평은 정성준(위덕대 교수), 마지막으로 '영산재 작법 속의 한국 실담장'을 강대현(위덕대), 논평은 심영환(한국학중앙연구원)이 하였다.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이라는 위중함 속에서 치러진 영산재 학술세미나는 감염에 철저히 대비하여 체온측정, 명부작성, 손 소독 과정을 거친 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영산재는 석가모니불이 영산에서 행한 설법인 영산회상(靈山會相)을 오늘에 재현하는 의식으로, 1987년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었고, 2009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금번 봉원사에서 개최된 영산재 학술세미나는 영산재의 학술적 기반을 다지고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관한 건 ●

봉원사는 순수 기부금에 한해서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사보 후원금 ●

이 승 환 1만 원(인공 스님)
김 종 원 10만 원(수암 스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병관리청

손바닥, 손가락 사이, 손톱 밑 등 구석구석 깨끗한 손씻기를 실천해요!

올바른 손씻기 6단계

- 1 손바닥**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 2 손등**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주세요
- 3 손가락 사이**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가락을 끼고 문질러 주세요
- 4 두 손 모아**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주세요
- 5 엄지 손가락**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주세요
- 6 손톱 밑**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하세요

부처/님/전/생/이/야/기

본생경(자타카) 69

자타카(Jataka)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을 통해 알려졌고, 그 후 구전되다가 문자로 기록되었으며 동서양으로 이어져 「이솝우화」와 「아라비안나이트」 그리고 우리나라 「삼국사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져 있다. 판소리 「별주부전」으로 발전한 「토끼와 거북」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설화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인도를 비롯한 중국 등 동아시아에 전파된 것은 1세기부터 6세기로 보고 있다. 중국은 67년 축법란이란 분에서부터 285년 축법호라는 분의 생경(生經) 번역까지 5차례에 걸쳐 700여 편의 본생 설화가 한역되었으며, 한국에서는 본생경(本生經), 일본에서는 본생담(本生譚), 중국에서는 본생주(本生注) 등으로 소개되고 있다.

마부의 전생 이야기

옛날 사바왕이 바라나시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보살은 그 대신으로 있었다. 그때 왕에게는 판다바라는 어마(御馬)가 있었다. 마부는 산야(山牙)라는 사람으로 절름발이었다. 말은 고삐를 잡고 앞에서 걸어가는 그 마부를 보고, '이 사람은 나를 길들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말은 마부의 몸짓을 배웠다. 그래서 말은 절름발이가 되었다.

사람들은 말이 절름발이가 되었다고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절름발이가 된 말을 고치기 위해 몇 차례나 수의사를 보냈다.

수의사들은 여러 번 가서 진찰해 보았으나 말의 몸에는 아무런 병도 없었다. 수의사들은 왕에게 그대로 아뢰었다. 절름발이 말은 고쳐지지 않았다.

“벗이여, 그대가 가보시오.”

왕은 보살에게 부탁했다. 보살은 그 말이 마부를 닮아 절름발이가 된 것을 쉽게 알아보았다.

“나쁜 사람과 사귀는 해가 이처럼 큰 것입니다.”

보살은 왕에게 이렇게 비유하면서 말이 절름발이가 된 사유를 설명하는 계송을 읊었다.

사바 왕의 말 판다바는
그 마부 산야에게 물들어
본래 가졌던 성질 버리고
그만 절름발이가 되었네.

왕은 어떻게 하면 말의 병을 고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벗이여, 그러면 어쩌면 좋겠는가?”

왕은 다시 보살에게 물었다.

“훌륭한 마부를 쓰면 말은 곧 본래대로 될 것입니다.”

보살은 그렇게 대답하고 다음 계송을 읊었다.

만일 체격이 좋은 적당한 사람
말의 고삐를 잡고 목장으로 다니면
그는 곧 나쁜 버릇을 버리고
그 사람만을 보고 배울 것이네.

왕은 보살이 시키는 대로 했다. 말은 곧 본성을 되찾았다. 왕은 '집승의 성벽까지 안다.' 고 기뻐하면서 보살에게 큰 지위를 주었다.

“음식물 쓰레기 걱정 싹~” 음식물 바이오 소멸기 및 살균수 생성기



업소용 음식물소멸기



가정용 음식물소멸기



살균수 생성기 싹수

- 캐나다 밴쿠버 세계박람회 최우수 상품 선정
- 미래창조과학부 “녹색기술 인증기업” 선정
- 이노비즈 기업 선정, 정부 광고지원 대상 업체 선정

(주) 조은생활 문의 : 김순복(010-3182-3445)

이달의 시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얹어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싶다
외할머니 보고싶다, 그것이 그냥 뉘두리인 줄만....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없다 식구들 다 먹고 굶어도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뼉뼉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심순덕/시인

1960년 강원도 평창에서 9남매 중 막내로 출생. 2003년 <한국문인>을 통해 등단. 주요 저서로 시집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가슴속에 사는 이름』, 『내 삶에 시를 심다』 등이 있으며 『엄마 마음, 태고시』를 엮었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 합격발원 백일기도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예년과 같이 대학입시생을 위한 합격발원기도를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

백일기도에 동참하시어 부처님 가피 속에 최선의 결과 기원합니다.

안 내

- 입 재 일 : 2020년 8월 26일(음력 7월 8일) 수요일
- 회 향 일 : 2020년 12월 3일(음력 10월 19일) 목요일
- 기도 시간 : 매일 새벽 5시, 오전 10시(2회)
- 장 소 : 봉원사 대웅전

- 기도 법 사 : 정명 스님
- 기도동참금 : 10만 원
- 문 의 : 종무소(02-392-3007~8) 및 각 화주 스님
- ※ 기도기간 중 백일기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종무소나 각 화주 스님께 신청바랍니다.

역대 선조사와 선망부모의 공덕을 기리며

- 선조사 스님 다례식 및 중구절 합동 다례 -



기원하는 합동 다례가 봉행되었다.

음력 9월 9일 중구절은 중구절은 '중양절'이라 부르기도 한다. 옛 어른들은 양수인 흠수가 중복되는 것을 좋아했다. 양수는 태양의 기운을 뜻해서 만물을 생성시키고 성장시키며, 열매를 맺게 해 사람을 돕는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월 1일, 3월 3일, 5월 5일, 7월 7일, 9월 9일 양수가 반복되는 날은 중요시 여겼다. 그 중 3월 3일 삼짇날은 씨 뿌리는 농사의 시작이요, 9월 9일은 추수의 마무리 시점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

그러나 중구절은 현대인들에게 거의 잊혀진 날이 되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중구절은 추석보다도 큰 명절이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올해처럼 이른 추석이 되는 경우 차례를 지내려 해도 햇과일이나 햇곡식이 없을 가능성이 많았다. 요즘 같이 사시사철 다양한 과일이 즐비하다면 주머니 사정만 챙기면 되겠지만, 50년 전만 해도 이견 여간 난감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추수가 끝나고 햇곡식이 나오는 중구절에 조상님들을 위한 차례를 많이 지내곤 했다.

특히 불교에서는 중양절을 뜻깊게 보내는데, 유교의 제사(祭祀)가 자신의 조상님들을 모시는 것과는 달리, 불교의 재회(齋會)는 내 조상님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숨을 거둔 모든 영가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과 음식을 전해준다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10월 25일(음력 9월 9일) 오전 10시 봉원사 부도전에서는 역대 선조사의 높은 공덕을 기리며 각자의 마음속의 번뇌가 사라지기를 염원하는 다례식이 봉행되었다. 선조사 다례식은 매년 음력 9월 9일 치러지는 행사로 선조사 및 선망부모를 위한 행사이며 조상의 공덕을 기리고 봉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는 염원이 담겨져 있다.

선망선조사들께서 역경의 세월과 각종 어려움과 범난 속에서 일구어놓은 삼보의 정재를 더욱 발전시키길 기원한다는 뜻과 은덕을 기리는 조사 다례(茶禮)는 민간에서 행해지는 차례(茶禮)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이날 중구절을 맞이하여 오후 2시부터 설법전에서는 선망부모의 극락왕생을

● 과일시주자 ●

송진여심 이정희

봉원사 아미타괘불도 중수 원만 회향 법회 봉행



괘불함도 함께 수리가 되어 봉원사로 돌아왔다.

봉원사의 아미타괘불도의 제작연대는 1901년으로, 2014년 7월 3일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363호로 지정되었다. 전체 크기는 623×395cm, 화면은 600×374cm, 무게는 126.5kg으로 면 바탕에 채색되어 있다. 이 불화는 1901년에 경운궁에 살던 고종 태황제의 후궁인 엄비가 돌아가신 부모와 외가 조상 등의 극락왕생을 발원, 시주하여 봉원사에 이 괘불도를 봉안하였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돋보이는 문화재이다.

괘불도에는 아미타불,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의 아미타삼존이 화면 가득히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고, 아래에는 가섭존자, 아난존자, 그리고 하단에 사자를 탄 문수동자와 코끼리를 탄 보현동자를 배치하였다.

이제 내년부터는 봉원사의 주요 행사에서 새롭게 보존, 처리작업을 마친 아미타괘불도를 만나 볼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9월 24일 오전 10시 봉원사 특설도량에서는 보존처리 작업을 마친 아미타괘불도를 모시고 중수 불공이 거행되었다. 불공은 주지 운봉 스님과 부주지 현성 스님, 환우 스님, 법사 만춘 스님과 봉원사 사부대중이 모인 가운데 원만히 봉행되었다.

2019년 7월에 시작된 아미타괘불도 보존처리 작업은 1년이 넘는 오랜 작업시간이 소요되었다. 모두 21단계의 보존처리 과정을 거친 괘불도와 함께 이를 보관하는

숲속 한방랜드 24시 숲가마 사우나

도심에서 즐기는 숲가마 찜질 여행
당신의 생활 속 편안한 휴식을 드립니다.



서대문구 봉원동 51
(시내버스 7024번 종점)
전화 : 02)365-2700~1

● 삼천불전 보수불사 시주자 명단(무순) ●

박진우 김흥제 정필원 오인석 김수연 이문석
이문수 김태준 김태만 이순례 장성정
시주해 주신 신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상의 풍류와 낭만을 따라서... 정자(亭子) 기행 67



송은정(松隱亭) 경상북도 문화재자료 제473호 / 경북 안동시

송은정(松隱亭) 안동의 아담하고 정갈한 정자

송은정은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태장리 산32-1 내에 위치하며, 송은(松隱) 송형구(宋亨久)가 관직에서 물러난 후 향촌 사림들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현종 5년(1664)에 이송천(二松川)에 처음 세웠으며, 후손 송인명(宋仁命)이 조상을 추모하고 유업을 계승하고자 1933년에 지금의 자리인 태장리에 다시 세웠다.

소나무가 우거진 야산 기슭에 자리한 이 건물은 온돌방 1개와 마루 1개 및 툇마루로 짜여 있고 정면 2칸, 측면 1칸 반의 소박한 정자다. 건물 하부는 시멘트로 기단을 만들었다. 정자 정면에는 화강석 주초를 놓고 4각의 누하주를 세웠다. 건물 왼쪽에는 온돌방을 오른쪽에는 마루방을 들였는데, 앞쪽에 반 칸의 툇간을 두고 퇴주 앞으로 2자 정도 마루를 더 확장하여 계자난간(鷄子欄干)을 세웠다.

정자에는 다수의 기문(記文)과 시판(詩板)들이 편액되어 있다. 그 중에는 송은정의 내력을 알 수 있는 '송은정기(松隱亭記) 기문(記文)'이 있고, 한글로 알기 쉽게 쓰여진 '송은정 약사(松隱亭 略史)' 편액도 볼 수 있다.

정자의 마루방에는 전면과 마루 쪽으로 접어들어 올려 열수 있게 만든 큰 문인 사분합문(四分閤門)을 두었고, 온돌방은 내부는 비교적 깨끗한 편으로, 마루 쪽으로 문짝 넷을 잇따라 단년출문을 두어 채광에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송은정을 앞에서 바라보면 커다란 소나무 두 그루가 자리를 잡고 서 있다. 정자는 바로 이 두 그루의 소나무 사이로 아담하게 자리를 잡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 송은정은 조선시대의 조성 기법을

그대로 계승한 모습을 보이며, 일제 강점기 때의 정자 건축 양식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건물의 측면과 후면을 보면 일제 강점기 시대 때의 창문도 살펴볼 수 있다. 정자 아래에는 양주 송씨 후손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 송은정 계자난간 마루에 앉아 두 그루의 노송 너머로 보이는 해질녘의 태장리 마을은 운치있고 매우 아늑해 보인다.

글/사진 선암 석인철
(한국사진작가협회 자문위원)



☯ 봉원사 주차장 이용안내 ☯

봉원사를 찾아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 차량을 이용하여 봉원사를 방문하시는 신도분들께서는 종무소나 각 화주 스님께 문의하시어 주차증을 발급받으신 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증이 없는 경우에는 요금(30분 무료, 이후 10분당 500원)이 발생합니다. 주차장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일반요금 : 기본 30분 무료, 이후 10분당 500원
- 무료주차 : 주차증 제시
- 문의 : 종무소(02-392-3007~8)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삼천불전 보수·정비 불사 계획도



◆ 모연부재목(시주내용) ◆

단위:만원

부재명	모연금	부재명	모연금
추녀	500	서까래	20
사래	200	개판	20
도리	100	부연	10
장여	50	기와(대와)	2



◆ 시주문의 ◆

종무소 : 02-392-3007~3008

삼천불전(三千佛殿) 보수·정비 불사

부처님 말씀에 ‘불사(佛事)는 복전(福田)이라’, 모든 중생에게 복에 종자를 심는 큰 터전이라 하셨습니다. 천년고찰 봉원사에서는 삼천불전의 보수 및 정비를 위한 불사에 온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장애를 모두 극복하여 보수·정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불교 전통문화 보전과 수행환경 개선을 위한 불사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큰 공덕을 짓는 의미있는 불사에 많은 신도님들 동참하시어 소중한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종무소(02-392-3007~8) 및 각 화주 스님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



✧ 봉원사 자원봉사단 단원모집 안내 ✧

귀의 삼보하옵고, 봉원사 도량 내 기와불사와 시주접수처 업무 및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아울러 봉원사에서는 정기적으로 군부대, 소년원 등 사회 각지에 부처님의 자비가 내려질 수 있도록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종교를 초월하여 손길이 필요한 곳에 희망을 전파하는 활동에 함께 참여하거나 도움을 주실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종무소(02-392-3007~8)

한국불교 태고종 봉원사